



智 · 德 · 體를 겸비한 글로벌 인재 육성의 요람

# 가 정 통 신 문

-청소년 음주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전 화: 063)533-4123

발 행 일: 2021. 11. 23.

담당부서: 학생생활부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가정 모두에 건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자녀들이 음주 및 약물 오·남용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정에서의 각별한 교육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1. 음주

### ▶ 청소년기 음주의 문제점

- ▶ 술은 간질환, 위장질환, 췌장염, 알코올성 말초신경계 질환 등 여러 질병을 일으킨다.
- ▶ 청소년기에 음주를 시작하는 경우, 습관성 음주자나 만성 알코올 중독자가 되기 쉽다.
- ▶ 청소년기에 술을 마시면 빠른 속도로 뇌신경세포에 알코올이 확산되어 마비 현상이 일어나고 감각과 운동의 둔화가 초래된다.
- ▶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기억력이 감퇴되며 학습효과가 저하된다. 파괴된 뇌신경 세포는 다른 세포와는 달리 재생되지 않는다.

## 2. 약물 오·남용

### ▶ “잘 쓰면 약! 잘못 쓰면 독!” - 약 잘 사용하기

- ▶ 약은 ‘질병을 피료하고 증상을 경감시키며 질병을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이라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의하고 있다.
- ▶ 약은 효과도 좋아야 하지만 약을 먹고 나타나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약은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 ▶ 병이 생겼을 때 무조건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병이 치료될 수 있을까? 약은 바르게 사용하면 우리 몸에 득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치명적인독이 될 수도 있다.
- ▶ 사용기한이 지났거나 어떤 약인지 알 수 없게 방치된 약들은 가까운 약국에 가져가 물어 본 뒤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수거 하도록 한다.

## 3. 술보다는 꿈을 키워야 할 때

청소년은 신체 내의 세포를 비롯한 장기들이 아직 성숙 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계속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술 또는 약물 등의 영향이 성인보다 큼니다.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는 학습 능력을 떨어뜨리고, 지적 세계의 확대와 사고의 추상화가 저해됩니다. 의학적 상식에서 벗어나 쾌락을 추구하기 위하여 약물을 사용하거나 음주를 하지 않도록 가정 내에서도 지도 부탁드립니다.

2021. 11. 23.

배 영 고 등 학 교 장

